

이 보도자료는 2018. 2. 20.(화)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혐의일 뿐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PROSECUTION SERVICE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공보담당관 지정장 박영진 전화 061-860-4312 / 팩스 061-860-4317	보도자료 2018. 2. 20.(화) 자료문의 : 1호 검사실 전화번호 : 061-860-4324 주책임자 : 검사 김승곤
---	---	--

제 목	강진만 생태공원 주차장 공사현장 폐기물 불법 매립 및 군청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수사결과
------------	--

- 광주지검 장흥지청(지청장 박영진)은 오늘(2. 20.) 강진군 남포리 일대 강진만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 공사현장에 페아스콘 등 건설폐기물 약 15,000톤(25톤 트럭 611대분)을 불법 매립한 현장소장 및 공사업체를 불구속 기소하고, 이 과정에서 위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를 묵인하고 허위 내용의 공사감독조서를 작성한 강진군청 소속 공사감독 공무원 1명을 구속기소하였음
-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앞으로도 관내 환경 사범 단속 및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부정부패사범을 엄단할 예정임

1 수사 착수 배경

- 2017. 11. 군소 인터넷 신문 기자가 폐기물 불법 매립을 기사화하겠다고며 공사업체 현장소장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사건 구속 송치
- 위 사건 수사 중 공사 현장에 페아스콘, 생활쓰레기 등의 폐기물이 실제 매립된 정황을 포착하고, 공사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상당량의 건설폐기물이 성토용으로 매립된 사실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2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
 - (주)○○개발
 - A○○(55세), (주)○○개발 현장소장
 - B○○(58세), (주)○○개발 대표이사
 - C○○(42세), 강진군청 계장(7급, 공사감독관)
 - D○○(51세), 인터넷 신문 ‘뉴스○’ 발행인 겸 편집인
 - 공소사실 요지
 - (주)○○개발, A○○은 2017. 7. ~ 8. 강진만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공사를 하면서 페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이 섞여 있는 불량 재생골재 약 15,275톤을 성토용 토사로 매립 **[폐기물관리법위반]**
 - A○○, B○○는 공모하여, 2017. 7. 28. 및 9. 15. 2차례에 걸쳐 C○○에게 위 주차장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 등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합계 250만원을 교부 **[뇌물공여]**
 - C○○는 2017. 7. 28. 및 9. 15. A○○로부터 위와 같이 현금 25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건설폐기물이 섞여 있는 불량 재생골재가 매립되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허위내용의 공사감독조서를 작성하여 제출 **[수뢰후 부정처사,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 A○○는 2017. 8. 18. 인터넷신문사업자 D○○에게 폐기물이 매립된 것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제공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 D○○는 인터넷신문사업자로서 2017. 8. 18. A○○로부터 위와 같이 현금 500만원을 수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 ※ D○○는 공갈죄로 구속송치되었으나, 수사결과 A○○에 대한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부정청탁금지법위반으로 의율하여 기소

3 수사 경과

- 2017. 11. 30. 강진경찰서, D○○ 공갈죄로 구속 송치
- 2017. 12. 12. D○○ 구속적부심 석방
- 2017. 12. ~ 2018. 1. (주)○○개발 사무실, 강진군청, C○○의 주거지 등 압수 수색, A○○, B○○, C○○ 등 관계인 조사
- 2018. 2. 1. C○○ 구속
- 2018. 2. 20. C○○ 구속기소 및 (주)○○개발, A○○, B○○, D○○ 불구속기소

4 수사 의의 및 향후 계획

- 전라남도 내 대표적인 환경 친화적 공원인 강진만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 공사현장에 건설폐기물인 폐아스콘 등이 섞인 불량 재생골재 15,275톤 상당(25톤 트럭 611대 분량)을 성토용으로 매립한 사실을 적발하고 엄단함



공사 초기 폐아스콘이 섞인 골재를 매립하는 모습

매립 후 D○○에게 지적받아 일부 개토하자 폐아스콘이 드러난 모습

- 또한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가능하게 한 감독공무원의 비리를 규명하여 구속기소하고,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강진군청 소속 상급 공무원 2명이 해당 공사업체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소속기관에 통보함(과태료 부과 대상)

- 더 나아가 위 주차장 부지는 생태공원이 인근에 위치한 농지로서 환경 오염이 우려되는 점 감안하여 위 공사 발주자인 강진군청에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통보 조치함
-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내 환경오염사범과 부정부패 사범에 대하여 엄정 대처할 계획임